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중금시역화 방지를 위한 은총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사순절 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전보다 한 번 더 기도의 손을 모으는 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발 한 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피부색과 국적은 다르지만 모두가 지구촌의 한 가족임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축제의 장에서 마련된 평화와 상생의 기운이 세계 곳곳에 퍼져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렘31:33 인도자

♠ 교 독 문 124. 사순절(1)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최다미 학생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449(통377).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성경봉독 I. 눅4:1-13 염철민 학생

..... II. 막8:31-38 김 극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성령에 이끌려 이성운전도사

..... II. 질정(叱正)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특 송 장성호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질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순간적으로 힘들고 버거울 수 있지만 인내하며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 생명이 됩니다.

다 함 께 : 아멘. 부드럽고 달콤한 말에 길들여져 거칠지만 참된 생명이 있는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부끄럽게 돌아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를 부인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순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집회
선교회	에베소서 공부3
	기도 : 이광섭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곽권희 권사	김인걸 장로(사회)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정원석 집사

2월	영접위원	한상익 하현철 정원석 김현영 박경원 서정순					
	헌금위원	한완식 문영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아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야 한이 없지만, 그것을 다한다면 재미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재미 같은 것을 바랄 수가 없고, 사는데, 하나의 역사적인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참말은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욕심이 없어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나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적이라는 저 나라를 위해서도 싸웁니다. 의는 내 나라에만 있는 것 아니고 저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법에서 천시불여지리天時不如地利, 지리 불여인화地利不如人和라 할 때의 화和는 내 나라 국민을 사랑한단 말만이 아니고 저쪽, 적국이라는, 저쪽의 국민을 더욱 더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 정신을 가진 군대는 정말 테니스의 말대로 “do and die, 그저 하고 죽는 것” 뿐이지, 살아남아서 제 공로를 내세우자는 생각을 티끌만큼도 아니합니다. 군대가 전쟁에서 그런 모양으로 일반 씨울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나>, 나입니다. 모든 일에 나 하나가 들어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국민이 썩어지면 사치를 합니다. 옷을 지나치게 입고 먹기를 지나치게 하는 것만이 사치 아닙니다. 말도, 글도, 생각도, 권력도 사치가 있습니다. 필요 없이 하는 것은 다 사치입니다. 사치하는 마음은 남을 위하지 않고 나만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한번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이런 어려운 시국을 만나게 된 깊은 의미는 우리에게서 들뜬 기풍을 제해버리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역사를 고난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생각을 나는 일제시대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고난 재질은 극히 작지만 다행히 일찍부터 좋은 스승들 만나서 공공을 위하는 정신을 조금 배웠습니다. 물론 감히 정성되게 지켰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날까지 잊지는 않고 옵니다. 그래서 일제의 압박 밑에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일본을 미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 마음을 써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얻은 것이 <고난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 국민이 위

대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 땅이 넓고 강한 것으로 되는 것 아니다’, ‘우리 나라는 타가지고 난 밑천이 그것을 할 수는 없다’, ‘도리어 우리는 남들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는 데서 희생이 된 것이 우리의 처지이므로, 우리는 그것이 최악이란 것을 가르쳐, 세계에 많은 약소국민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평화적인, 모든 인류가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평화적인 새 문화를 창조하게 하는데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 세계역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내 해석으로는 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을 옳게 살려내지 못하고 점점 더 사치한 문화, 더 악질적인 전쟁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크게 반성할 것은 우리는 그 그릇된 대국가주의, 거기서 필연적으로 오는 대기업주의, 사치부허한 생활에 말려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군, 관, 민이 다 같이 이점에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는 눈으로 인류의 눈앞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사명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 보면 네 집 내 집이 없는 것 같이 군, 관, 민이라는 그런 구식적인 관념을 버리고 새 역사 창조의 선봉으로서의 자신을 가지는 자리에 서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 설 땅은 없습니다.

(.....)

춘추전국 시대에 나서 중국천지의 참혹한 꼴을 보고 노자는 치인사천 막린색治人事天莫吝嗇, 사람 다스리고 하늘 섬기는 데는 그저 아끼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치과열이란 말이 요새 유행했습니다만 그때도 정치과열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들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의 걱정은 들뜨는데 있습니다. 들뜨도 실속도 없이 들뜨는 것입니다. 미국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사회의 틀이 잡힌 나라도 들뜨면 안 되는 데, 우리는 남의 빛으로 겨우 일어서려는 나라인데 당장 돈이 있다고 제 돈이나 되는 양, 제 기계, 제 기술이나 되는 양 들뜨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주로 시작됐느냐하면 정치에서입니다. 뒤늦게 일어서는 우리일수록 들뜨서는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또 찾는다면 깊은 철학(혹은 신앙심이라 해도 좋습니다) 없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문제는 씨울에게로 몰립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땅바닥에 내려오야 말기 때문입니다.

- 함석헌, 「씨울의 소리」 1980년 7월호 중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영국인 여자 친구에게

벤 오크리

.....

네게 일어난 모든 일이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앞으로도
 언제나 변화시킬 생각을 만들어낼
 무한히 풍요롭고 무한히 말랑말랑한
 원료라는 점을 생각하라.
 언제나 제때에 우리 영혼에서 가장 나쁜 것과
 가장 비천한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랑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한다
 지혜로움으로 세계를 사랑하라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무기이고
 가장 깊고도 단단한 비밀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야
 어둠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드럽다
 창조의 다양한 꿈들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수많은 길들을
 고마워하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삶을 고마워하라
 기적의 빛이, 열려 있는 길로
 언제나 너를 이끌어 가기를.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재흥 최희영 임주빈 최현옥 조관행 홍선희 박병구 이혜수 정재정

월정헌금:

윤성희 송임희 백성래 문홍일 김남홍 무명

감사헌금:

김준호 곽혜자 이하솔 이하람 박옥식 권혁순 박혜경 구성실 강순배
박병구 배삼순 이정은 김준우 김대근 최종미 김지호 전해리 무명

녹색꿈헌금

장영숙 무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연합속회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배부례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서원금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십여 일간의 영적인 순례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2. **교사임명** : 오늘 예배 중에 2010년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3. **인사구역회** :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인사구역회가 열립니다.
4. **교육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5. **선교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회장님들은 모임 후 보고서를 제출해주세요.
6. **바자회** : 아이티 돕기를 위한 바자회가 청년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물품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7. **졸업예배** : 다음 주일(28일)은 교회학교 졸업예배입니다. 교회학교는 연합으로 11시에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8. **결혼** : 정재운 씨와 정미경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27일(토) 12시 30분에 공군회관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9. **신앙실천** : 졸업철입니다. 크고 부담되는 선물보다 좋은 책을 선물해 보세요.

* 떡 대접 : 광혜자 권사님 덕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다음 주 : 베들레헴 속)

* 설거지 봉사 : 연태호 전충길 남창모 (다음 주 : 장재영 김재영 이준하)

2010년 교사 명단

교육부장 및 교장 : 김인걸

유아 유치부 : 최문희 박소진 이나단 김서현

아 동 부 : 광권희 박경선 오재환 윤 윤 박영실 조지연

중 고 등 부 : 황경순 장성호 김민주 한성건

청 년 부 : 김경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